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3.(금) 배포시점 배포 2026. 11. 13.(금) 회의 종료 후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승인 신청 승인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안정성·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승인조건 부과 -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부문(홈쇼핑)과 투자사업부문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3일 '2026년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현대홈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고, 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분할계획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해 ㈜현대홈쇼핑 지주(가칭)를 신설하는데, 존속법인은 홈쇼핑 사업을 맡고, 신설법인은 기존에 보유하던 계열회사 지분을 승계한다.

방미통위는 최수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심사위원회(7인)를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여 7개 심사사항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모두 적격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현대홈쇼핑의 비상장 전환에 따른 경영 투명성 저하 우려, 자금 유출 가능성, 신설투자회사로 배분 예정인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다음과 같은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①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

② 배당 및 자본거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사항을 방미통위에 제출

③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연대책임 유지

④ 신설투자회사의 책임경영 재원* 500억 원 투입·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확약서 제출

* 홈쇼핑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재무적 필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재원

⑤ 협력사 상생펀드 집행률 및 지원기업 수를 신청 당시 수준 이상으로 유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한 것"이라며, "㈜현대홈쇼핑은 승인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시청자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방송미디어진흥국 미디어콘텐츠진흥팀	책임자	팀 장	김새별 (02-2110-1490)
		담당자	사무관	김용현 (02-2110-14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두의 미디어 주권,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